

중국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 조치 시행

“

중국의 국가발개위, 생태환경부 등 9개 중앙부처는 7월 17일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 의견>을 통해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판매·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 및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 중국은 오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주요 도시의 플라스틱 폐기물 양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점차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을 발표함.
- 전국 범위 시행 조치 사항
 - 전국적으로 초박형 비닐봉지와 농지용 플라스틱 초박막의 생산·판매금지
 - 2021년부터 주요 도시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제품	시행 시기 및 내용
두께 0.025mm 미만 초박형 비닐봉지(크린백(롤 타입 포함), 비닐랩 제외)	2020. 1. 1.~ 생산·판매 금지
두께 0.01mm 미만 농지용 폴리에틸렌 박막	
1회용 플라스틱 면봉	2021. 1. 1.~ 생산·판매 금지
발포 플라스틱 식기	
미세플라스틱(알갱이)을 첨가한 화장품과 치약	2021. 1. 1.~ 생산 금지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우유 및 음료팩에 부착한 빨대 제외)	2021. 1. 1.~ 사용 금지

[출처 : 중국 생태환경부]

◆ 시 행 일 : 2020년 1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

○ 우선 시행 도시의 조치 사항

〈우선 시행 도시〉

직할시(4개)	성도(27개)	계획단열시(5개)	지급시(294개)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스자좡(허베이), 지난(산둥), 난징 (장쑤), 정저우(허난), 우한(후베이), 항저우(저장) 등	다롄, 칭다오, 닝보, 샤먼, 선전	옌타이, 웨하이, 옌청, 후이저우 등

- 2021년부터 4대 직할시, 27개 성·자치구의 성도(省會, 省정부 소재지)와 5개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및 지급(地級) 이상 도시에서 플라스틱 사용금지 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함.
- 주요 도시의 백화점·쇼핑몰·슈퍼·마트·약국·서점등의 영업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었음. 또한,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 및 각종 전시 행사에서도 비분해성 비닐봉지의 사용이 불가함.
- 지급시의 관광지에서는 내년부터 비분해성 플라스틱 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함.

〈우선 시행 도시 적용 사항〉

제품	시행 범위	시행 시간·조치
분해되지 않는 비닐 쇼핑백	- 직할시·성도·계획단열시의 백화점·쇼핑몰·슈퍼·마트·약국·서점 등 영업장 - 외식업체 식자재 포장(테이크아웃) - 각종 전시 행사	2021. 1. 1.~ 사용 금지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식기 (나이프, 스푼, 포크 등)	- 지급시 관광지, 식당 등	

- 올 1월에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을 주요 현급 도시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전면 금지함.
-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 음식의 경우, 2025년까지 일회용 식기 사용량을 30% 감소해야 하며, 대신 친환경 재활용 식기를 사용하도록 함.
- 전국 모든 호텔 및 숙박업체에서 제공하는 일회용품의 경우, 2025년 말까지 주동적으로 제공하지 못함. (자동판매기나 리필 가능한 용기에 담아 고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택배업체에서 사용하는 포장재의 경우, 2022년 말까지 주요 성·시(베이징,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광둥 등)에서 우선적으로 비분해성 플라스틱 포장재와 일회용 부직포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비닐테이프 사용량을 줄여야 하며, 2025년까지 전국 모든 택배업체에서 사용을 금지할 예정임.